

HRD 12월의 이슈

-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착수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유공자 찾아

HRD 동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25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규모 확대
211명



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
훈련 인원 확대
2,430명



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5회차 고용허가 규모
33,803명



10월 고용시장,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3.3%

Vol.105
December 2024 **12**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촉진합니다!

지난 11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 의견수렴,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 등을 병행할 예정이며, 논의 종료 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노동시장 변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COVER STORY

최저임금제도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됩니다.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HRD 스페셜

- 04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착수

HRD 현장

- 04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유공자를 찾습니다
- 05 구인구직 어려움? 고용센터가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 06 급변하는 고용 환경속 고용서비스 역량강화 위한 한국고용정보원 2024직업진로지도 세미나 개최
- 0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인사관리로 기업경쟁력을 높여요!
- 07 전공 불문, 10개월 만에 기술자로 재탄생
- 08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 08 「채용시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분석 결과 발표
- 09 고용노동부-교육부 협업으로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
- 10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취업지원사업 관계자 머리를 맞대다!
- 11 정부 인정으로 사업주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을 높인다!
- 12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밥은 먹고 다니니' 팀 국무총리상 수상
- 12 "미래 기술인재, 함께 키워요"
- 13 청년취업전략, 직무분석에 답이 있다
- 14 "폴리텍대학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찾았습니다"
- 15 2026년까지 중장년층 폴리텍 직업훈련 6배로 늘린다
- 16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16 인공지능(AI) 시대 진로교육 혁신 방안 마련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 17 청년 일경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17 산업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용 BRIEF

- 18 '24. 10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 19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연구 INSIDE

- 20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 20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 일자리 변동 분석
- 2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 21 직장이동(Job-to-Job)과 산업별 일자리 전환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 2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해외취업정착지원금)

통 권 제 105 호
발행일 2024년 12월 13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관리국
052-714-8325
구독신청 및 문의 1stlee2@hrdkorea.or.kr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착수



2024년 11월 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착수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
- 현장소통·의견수렴 병행,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속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유공자를 찾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유공자를 찾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플랫폼·특고, 청년·여성·장애인 등 현장의 숨은 유공자 우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8일(목)부터 12월 24일(화)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국내취업자,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등) 및 노동조합원 등을 매년 발굴하여 포상에 오고 있으며, 1975년부터 올해까지 18,291명에게 포상을 했다.

특히, ‘25년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기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숨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포상규모(‘24년 191명 → ‘25년 211명)도 확대했다.

* (포상규모안) 훈장(16점), 포장(16점), 대통령표창(53점), 국무총리표창(56점), 장관표창(70점) ‘근로자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1과)에 포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5년 4월 말에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포상 추천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2025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안내」 참조

김문수 장관은 “우리 주변에 본인도 힘든 상황임에도 회사와 동료, 이웃들까지 살펴 가면서 일하시는 진정한 숨은 역군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런 분들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계신 숨은 유공자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구인·구직 어려움? 고용센터가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구인·구직 어려움? 고용센터가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성과 공유회」 개최, 우수사례 68점 시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1월 27일(수) 「2024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성과 공유회」를 열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한 우수사례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에게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이하, ‘도약보장 패키지’) 우수사례」와 기관 협업을 통해 참여자 한명 한명의 상황에 맞추어 고용·복지·금융 통합서비스를 제공한 「고용복지+센터 협업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 ▲도약보장 패키지(대국민 23점(구직자 10, 기업 7, 홍보 6), 고용센터 25점(구직자 14, 기업 11)) ▲고용복지+센터 협업 20점

고용센터를 통해 기업의 청년구인난 해소!

「도약보장 패키지 우수사례」 시상은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사례 수기 부문 등 대국민 부문과 고용센터 전담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구직자 수기부문 대상은 심층상담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교사 경력을 살려 아동사회복지사로 취업한 경력보유여성 김현정 씨(가명)가 받았다. 김현정 씨는 “스스로를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오며 찌그러진 동그라미라고 생각했지만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내 꿈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다시 반짝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업 수기부문 대상을 받은 전력전자 부품업체 (주)코아전기 이효선 이사는 “고용센터 덕분에 중소기업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청년구인난 문제를 해소*하고,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취업규칙도 개정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 고용센터의 기업지원은 우리 회사에 찾아온 따스한 봄 햇살같았다.”라고 말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경기경영자총협회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청년 채용

고용센터 담당자 부문 대상은

▲ 구직자 : 김정규상담사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 기업 : 이태희 주무관(대전고용복지+센터)이 수상했다.

김정규 상담사는 정보기술(IT) 분야로 직업전환을 꿈꾸던 비전공 청년에게 잡케어 역량진단,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직무분석,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여 정보기술(IT) 업체에 희망 연봉보다 33% 더 높은 조건으로 취업을 성공시켰다.

이태희 주무관은 기업설립 1년 미만 중소기업의 청년구인난 해소를 위해 기업 홍보영상 제작, 마이스터고 연계, 병역특례기업 신청 등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중기부) 참여 등 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했다.

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복지와 취업을 한 손에

「고용복지+센터 협업 우수사례」 대상은 김유화 상담사(강릉고용복지+센터)가 받았다. 김유화 상담사는 강릉시 복지과,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업하여 배우자 사별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고령자에게 기초생활수급, 심리상담 등을 연계하고 이력서 작성, 교육 이수 등을 지원하여 취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순예 상담사(목포고용복지+센터)는 중장년 내일센터와 힘을 모아 코로나로 인한 폐업의 좌절을 겪은 중장년 여성이 ‘조선업 여성특화반 용접과정’에 참여해 용접 자격을 취득하고 용접공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정현 고용정책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급변하는 고용 환경속 고용서비스 역량강화 위한 한국고용정보원 2024 직업진로지도 세미나 개최



2024년 11월 8일, 한국고용정보원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급변하는 고용 환경속 ~ 한국고용정보원 2024 직업진로지도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11월 8일 금요일 10시, 플렌티컨벤션(서울 서초구)에서 「2024 직업진로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직업진로지도 세미나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로경력 개발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고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장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이 급변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며 구직자 취업역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최근 경력직 채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최신 진로 및 직업 상담 기법과 경향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 발표, ▲고용서비스 종사자 간 정보 및 노하우 공유, ▲신규 및 개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안내로 구성되었다. 특히, 그룹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진행자로서의 보람과 성장 경험을 나누며 현장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지고 운영에 있어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며 구직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고재성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근로 형태의 다변화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구직자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이 채용시장과 상담 기법 경향을 배우며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직업진로지도 담당자 및 관련 업무자 등 약 1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인사관리로 기업경쟁력을 높여요!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인사관리로 기업경쟁력을 높여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1월 27일(수),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구로에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국가직무능력준을 활용한 직무분석 등을 토대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이번 경진대회에는 108개 기업과 23인의 컨설턴트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맞춤형 직무능력표준 활용’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19개 기업과 6명의 컨설턴트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 고용노동부 장관상 5점(최우수 5), 공단 이사장상 20점(우수상 10, 장려 10),

올해 최우수상을 받은 코레일로지스(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거쳐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선하여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한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직무에 적합한 채용·교육·훈련·이동배치와 공정한 성과평가·보상까지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널리 활용되어 더 많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공 불문, 10개월 만에 기술자로 재탄생



2024년 11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전공 불문, 10개월 만에 기술자로 재탄생**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밴드 베이시스트, 신학도, 공시생 등 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 취업 사례
- 훈련생 과반수가 비전공자, 취업의 만족도 가능하는 ‘취업유지율’ 역대 최고
- 훈련 인원 2,430명으로 확대... 내년 3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 김정(33·남) 씨는 밴드 ‘케슈넛 블라썸’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하며 실용음악 학원 강사로 근무했다. 생활이 어려워 카페에서 일하며 ‘투잡’을 하다가, 창업까지 해 3년간 운영했지만 녹록하지 않았다. 새 길을 모색하던 김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3월,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AI소프트웨어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재학 중 SQL* 개발자(SQLD),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등 자격을 취득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역량을 키워 나갔다. 비전공자지만 진로 전환에 성공해 현재 유니베라 비전개발팀에서 쇼핑물과 앱 기획을 담당하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정보기술(IT) 산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인공지능(AI) 분야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교육과정이 비교적 짧고 집중적으로 배우는 하이테크과정을 활용하면 본인의 가능성과 진로를 다방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Structured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에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이 김 씨와 같이 ‘하이테크 과정’을 통해 첨단 분야 기술 교육을 받고 취업한 청년들의 사례를 11월 26일 소개했다. 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은 청년들을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급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미래 유망 분야 중심으로 직종이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0개월 동안 김 씨와 같은 비전공자도 취업이 가능할 만큼 실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과정에 입학한 청년 중 과반수(57.9%)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었고, 수료생 10명 가운데 7명(75.7%)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 취업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3개월 취업유지율(취업자가 일정 기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24.2. 수료생, 취업률 ’24.3.31. 취업유지율 ’24.6.30. 기준

독서를 꿈꾸던 신학도 강성복(26·남) 씨도 하이테크과정을 통해 기술 분야 취업의 꿈을 이뤘다. 대학 졸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앞날을 고민하던 강 씨는 경제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어 진로를 변경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현대중공업 협력사에서 4개월간 케이블 포설과 전기 결선 등 단순 업무를 맡아 일했는데, 이에 한계를 느껴 전문 교육을 받기로 결심했다. 미래 유망성을 보고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에 입학한 강 씨는 산업안전 기사와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시험에도 합격했다. 최종적으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유니셈에 취업하는 성과도 올렸다. 스크러버 scrubber유해가스 정화 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그는 “**직무 특성상 기계를 조립하고 수리하는 게 주된 일이라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산업안전 보건법과 전기회로 실습이 실제 현장 근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화공생물공학을 전공한 박미연(31·여) 씨는 대기업을 목표로 2년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 준비를 했다. 그러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1년간 근무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뛰어들었다. 1년 반의 노력 끝에 9급 행정직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하며 연거푸 실패를 겪었다. 서른 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성남캠퍼스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 입학한 박 씨는 기초 프로그래밍부터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술을 익혔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에서 고객사와 개발자 간 소통을 담당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인공지능(AI)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박 씨는 “**막연히 개발자가 되고 싶던 입학 당시와 달리, 이제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성장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멋진 인재가 되고 싶다**”라며 구체화된 목표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올해 하이테크과정 훈련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30명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필요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30명까지 훈련 인원을 크게 늘린다. 폴리텍대학은 내년 3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하이테크과정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밴드 ‘케슈넛 블라썸’ 베이시스트 겸 실용음악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김정씨가 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을 통해 진로 전환에 성공해 유니베라 비전개발팀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모습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2024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장이 비전문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되었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생생한 목소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김문수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인력 활용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고,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업종과 직종의 확대, 숙련인력의 장기체류 지원 등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맞게 변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채용시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분석 결과 발표



2024년 11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채용시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도 채용공고 중 127,612건 분석 -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사 자격을 가장 많이 채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1월 27일 고용24* 기업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고용24(www.work24.go.kr)은 구인·구직 및 직업·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취업정보포털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워크넷에서 2024년 9월부터 고용24로 서비스 이름을 변경함 고용24의 2023년 전체 채용공고(1,674,560건) 중 127,612건(7.62%)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다. 특히 기능사 자격의 채용 활용 건수가 59,97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 36,847건(28.9%), 산업기사 19,773건(15.5%), 서비스 9,434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우대)요건인 자격 중 상위 20개 종목을 살펴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7,108건(13.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식조리기능사’ 13,361건(10.5%), ‘전기기사’ 6,910건(5.4%)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 분야 자격이 가장 많이 활용(30.2%)되고 있었으며 전기·전자 분야(18.3%), 음식서비스 분야(10.9%) 자격 순이었다.

등급별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종목은 △품질관리기술사(기술사), ▲조리기능장(기능장), ▲전기기사(기사), ▲전기산업기사(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기능사), ▲직업상담사2급(서비스)이다. 공단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 자격 종목을 검색**하면, 고용24와 연계되어 자격 종목의 일자리 정보 확인은 물론 입사 지원도 할 수 있다. ** 큐넷(www.q-net.or.kr)→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종목 검색→일자리 정보[탭]에서 확인 가능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채용공고 정보 분석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실제 채용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자격 취득자들이 편리하게 취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내용의 세부 결과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교육부 협업으로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



2024년 11월 27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직고용노동부-교육부 협업으로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27일(수), 청년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지원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부처는 청년들이 내실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대상)	협업 내용
직업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고용부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원 연수 ▲ 직업계고 졸업생 미취업자 정보 공유로 국민취업지원사업 참여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지원 ▲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 대한 정보 공유로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지역(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즈(RISE)-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연계로 지역 내 인재양성-취업·정주의 생태계 구축 ▲ 지역 내 라이즈(RISE) 참여기관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인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

첫째, 직업계고 교육의 산업 현장성을 높이고,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직업계고 교원에게 신기술 분야 현장 기술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참여시켜 산업현장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촉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미취업자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취업지원 사업 참여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취업연계 장려금과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연결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청년들은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를 확대한다. 직업훈련에 대학의 우수한 교육시설의 이용과 능력 있는 교원의 참여를 높여 청년들에게 질 높은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졸업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부처와 기관들이 보유한 교육, 자격, 훈련 정보 연계로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기관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원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맞춤형 고용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본인의 경력설계와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양 부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인재 양성에서부터 청년의 직업훈련, 취업 및 정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부의 라이즈(RISE) 참여기관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인력공급과 지역 산업계 인력수요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고 해소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청년층 인력확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이후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전문대학, 직업계고, 학생,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취업지원사업 관계자 머리를 맞대다!



2024년 11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취업지원사업 관계자 머리를 맞대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대내·외 관계자들 80여 명과 함께 11.25.(월) 무주에서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발전 방향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1월 25일부터 26일 까지 무주 덕유산 리조트(무주군 설천면)에서 「글로벌 커리어, 무한한 가능성 : K-Move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지나온 발자취를 살펴보고, 현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사업 계획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성장스토리 공유 ▲해외취업 연수 사업 우수 운영기관 시상 및 사례 발표 ▲HRDK 미래지식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첫날에는 싱가포르·일본 등에서 해외취업에 성공한 멘토 4명이 K-Move스쿨 참여 이후 경력개발 과정에서 겪은 경험담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한다.

이후 시상식에서는 11월 11일(월) 개최한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관인 한양여자대학교(대학부문 대상), (주)리얼스톤(민간부문 대상), 국립공주대학교(해외일경험 부문 대상)가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양여자대학교는 K-Move스쿨의 체계적 운영으로 연수생의 싱가포르 5성급 호텔 취업사례 및 해외 취업 경력을 살려 국내 5성급 호텔로

이직에 성공한 사례 등 글로벌 인재 양성 사례를 제시한다. (주)리얼스톤은 K-Move 연수과정을 하나의 회사와 같이 시스템화한 독특한 운영 방식의 성공으로 미국 취업자 다수가 영주권 제안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국립공주대학교는 디스플레이 부품 등 충청남도 주력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해외법인 매칭을 통한 해외일경험(WELL) 지원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튿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향후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의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중·장기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외 노동환경변화 파악이 중요하다”라며,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을 우리나라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지원하겠다”라며, “해외 진출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인정으로 사업주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을 높인다!



2024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정부 인정으로 사업주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을 높인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자격 정부인정 선포식」 개최
- 가상현실(VR)기술 기반 '선박도장' 자격 제1호 사업주자격 인정 협약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11월 25일(월) 용산전쟁기념관(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사업주자격 정부인정 선포 및 협약식」 행사를 했다.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을 ▲안전작업 ▲매출증가 ▲품질향상 ▲조직몰입에 효과적인 자격으로 평가하며, 근로자도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사업주 자격에 대한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

 안전작업 “고위험 직무 일수록 체계적 교육이 중요, 자격을 통해 안전 작업에 정확한 피드백 가능...”	 매출증가 “제품 판매시 자격을 취득한 영업사원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매출 30% 이상 제고...”	 품질향상 “기존에는 가맹점마다 맛에 편차 존재, 자격 도입 후 높은 수준의 균일한 맛을 제공”	 조직몰입 “자격과 포상을 연계하여 학습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부여, 직원 이직률 78% 감소...”
---	--	--	---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인정 강화를 요청*했고,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따라 마련되었다.

* 사업주자격 검정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24.9.30.) 등

정부는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의를 거쳐 심사에 통과한 기업에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활용 ▲직무능력은행제 등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자격 운영 담당자 교육지원 ▲우수사례 포상 등을 지원한다.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는 근로자의 참여 유도 및 함께 전문성 향상과 자금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조선사의 선박도장자격을 제1호 사업주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협약식도 함께 열렸다. 선박도장 직주는 비용·안전·환경 문제로 기존에는 실제 현장에서 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계는 2년 전부터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훈련한 후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선사들은 이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정부 인정을 통해 자격이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호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을 시작으로 산업별적 자원개발위원회(ISC)가 앞장서 발굴한 기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인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성안 협회장은 “가상현실(VR)기술 기반 선박도장자격을 '안전'과 '환경', 숙련기술인의 빠른 양성으로 세계 속의 조선 최강국 대한민국을 앞장서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인정 1호 사업주자격으로 '선박도장' 자격이 가상현실(VR)기술 기반 자격의 새지평을 열어나가는 데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사업주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국가기술자격의 발전에 시사점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한민국 자격체계가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라는 새로운 뜻을 달고 힘찬 항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산업계의 관심과 참여,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밥은 먹고 다니니' 팀 국무총리상 수상



2024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밥은 먹고 다니니' 팀 국무총리상 수상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1일(목) 개최된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에서 '밥은 먹고 다니니'팀이 대상을 받았다.

지정과제*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은 '밥은 먹고 다니니' 팀의 구성원들은 디지털 선도기업인 '카카오'와 혁신 훈련기관인 '구름'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고령층의 신체적 고려한 맞춤형 소일거리를 추천하는 플랫폼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	구분	상훈	팀명
지정과제	국무총리상 (1)	국무총리상	밥은 먹고 다니니
	최우수상 (2)	장관상	P.O.T(팟), 음성감독원
	우수상 (4)		천사 배달부, 부드라미, 육켄두잇, 어바웃
	장려상 (4)		프롬버스, 방구석 뉴런들,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하호호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장상 (5)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장상
자유과제	최우수상 (2)	장관상	DANBEE(단비), SiGenie
	우수상 (4)		쇼미더빙글(더빙+글), Faker, 로동자(Law동자), FT Corporation
	장려상 (4)		E도, HAI, Foreigners, 스텝시그널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장상 (5)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장상

* 저출생·고령사회에 필요한 첨단-디지털 서비스 개발

노인들이 간단한 소일거리 수행을 통해 가상 화폐를 받으면 이를 통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결식 및 빈곤 문제를 기술과 연계한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미래 기술인재, 함께 키워요"



2024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미래 기술인재, 함께 키워요"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교육부 시도교육청 첫 매칭데이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이주호)는 11월 7일(목) 한국전기공사협회(청주시 흥덕구)에서 산업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ial Skills Council, ISC)*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 (ISC) 수요자인 산업계 주도로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전자-기계-정보기술 등 20개 산업 분야별로 구성-운영.

이번 매칭데이는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해 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의 가교 역할을 한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 역량향상과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유관(ISC,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부 유관(중앙취업지원센터,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동아마이스터고) 기관들이 참여해 기관별 역할과 요구를 공유하고, 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매칭데이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유관기관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그 의미가 각별하다"라며 "매칭데이를 계기로 벽을 넘어선 과감한 협업으로 전에 없던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고교 직업교육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모습이 교육 현장에 적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교육부-고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매칭데이를 계기로 산업현장 전문가들의 직업계고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년취업전략, 직무분석에 답이 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청년취업전략, 직무분석에 답이 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취업진로학회와 추계학술대회 공동개최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취업진로학회와 공동으로 청년취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직무중심 채용시대, 대기업 직무분석과 취업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직무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채용패러다임을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연구진이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취업진로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취업진로정보의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년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기반 채용이 확산되는 것을 반영하여 주요 업종별 직무분석과 취업전략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며 주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분야별 직무분석과 면접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총 5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1주제 발표로 대진대 이대성 교수의 '직무중심 채용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제2주제 발표로 이상원 팀장(전 SK 건설)의 '인사 직무분석과 대졸 구직자 면접전략'이 발표되고,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부연구위원, 전용석 연구위원, 덕성여대 장영수 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3주제 발표로 조세현 CJ제일제당 대리의 '영업직 직무분석과 대졸 구직자 면접전략', 제4주제 발표로 고권애 우리은행 차장의 '은행권 직무분석과 대졸 구직자 면접전략', 제5주제 발표로 한현구 LG생활건강 파트장의 '마케팅 직무분석과 대졸 구직자 면접전략'이 이어지며 이화여대 민현정 박사, 삼육대 채희원 교수, 전남대 김환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부원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취업시장을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무이해를 반영한 구직전략이 필수이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주요 대기업의 맞춤 직무를 파악하여 특히 청년 구직자가 역량개발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폴리텍대학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찾았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폴리텍대학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찾았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청년, 일경험 없이 공백기 겪던 청년 등 취업 성공 사례 소개
- 이달 25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수시 2차 모집

불안정한 고용으로 앞날을 걱정하던 청년도, 일경험 없이 공백기를 보내던 청년도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을 통해 원하는 취업에 성공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라면 폴리텍대학의 교육과정을 주목해 볼 만하다.

① 기업 맞춤형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에서 기술자로 '탈바꿈'

박상훈(29·남) 씨는 올해 9월부터 특수강 시장 국내 1위 기업인 (주)세아베스틸 제강부에서 일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과 전주에서 사회복지사로 3년간 근무한 그는 주민 조직화 사업과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일에 보람을 느꼈지만, 고용 안정성이 큰 고민거리였다.

박 씨는 정규직 전환이 무산되자, 건축공학 기술자인 아버지가 정년을 넘어서도 꾸준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3월 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한 그는 재학 중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비롯한 5종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박 씨를 포함해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같은 캠퍼스 출신 11명이 채용 연계 기업 맞춤형 과정을 이수하고, (주)세아베스틸에 동반 입사했다. 그는 "기술을 배우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취업 소감을 밝혔다.

② 비정규직 타향살이하던 청년, 지역 정주형 인재 되다

4년제 대학에서 호텔항공관광학을 전공한 권태(30·남) 씨는 타향에서 계약직과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지난해 3월 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기계설비보전과(현재 기계보전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했다. 고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곳에서 자동화 생산설비와 기계장치의 유지, 보전 기술을 익히고, 기계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7월부터 한전산업개발(주) 보령사업처에서 발전설비의 운전과 정비 관리 직무를 맡아 일하고 있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일찌감치 취업에 성공한 권 씨는 "처음에는 생소한 분야였던 만큼, 이 길이 내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도 현장과 유사한 실습환경, 친자식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라고 했다.

③ 공무원 수험생이 공백기 접고 뛰어든 길

신혁교(26·남) 씨는 고교 졸업과 군 전역 후 정착할 만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에 뛰어들었다. 2년간의 수험 생활을 포함해 공백기가 길어지자, 기술 분야로 진로를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했다. 높은 취업률과 자동화 기술의 유망성에 주목했다.

신 씨는 올해 9월 (주)농심에 입사해 포승물류지점에서 컨베이어 관리와 자동화제어장치(PLC)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수업의 대부분이 실습이라 책으로 배우는 것과 다르게 빠르게 이해하고, 실제 활용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라며 "대학에서 배운 자동화제어장치(PLC) 기술은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은 80.6%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취업자가 일정 기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92.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까지 중장년층 폴리텍 직업훈련 6배로 늘린다



2024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026년까지 중장년층 폴리텍 직업훈련 6배로 늘린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 맞아 전략적 변화, 26년까지 신중년 특화훈련과정 1.5만명 확대
- 김문수 고용부 장관, 3일 서울정수 캠퍼스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 현장 방문

#. 홍성표(58·남) 씨는

31년간 재직하던 한국GM 퇴직 후, 기술직으로 재취업을 희망해 서울정수캠퍼스 지능형에너지설비과에 입학했다. 수료 후 공장 (주)휴콤에 기계설비기사로 입사해 롯데타워에서 두 번째 생애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 서상득(57·남) 씨도

은퇴를 맞아 기술직 진출을 결정한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교육생이다. '92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퇴직하기까지 금융맨으로 살아온 서 씨는 올 초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하고 (주)노바코리아에서 공조냉동 기술자로 근무 중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올해 2천 5백 명에서 2026년까지 1만 5천 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월 3일 밝혔다.

중장년 대상 훈련 확대는 올해부터 950만 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 나이(60세)에 진입하고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 용접, 설비 등 다양한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60%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중장년층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는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시간과 장소적 제약 등 중장년층이 훈련을 받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훈련과 집체훈련을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직업훈련 모델을 내년에 시범운영 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모델이 확산된다면 이론 교육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받고, 실습은 가까운 폴리텍대학에서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중장년층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정수 캠퍼스를 찾아 자동화 (PLC&CAD), 미래형자동차 분야 등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을 참관하면서 훈련생 및 대학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내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장관은 "핵심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고령층이 희망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폴리텍대학이 중심이 되어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2차 베이비부머가 생애에 걸쳐 축적한 숙련과 경험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고용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내년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훈련 비용은 무료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가진 40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2.부터 12.6.까지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 고용노동 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았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①뿌리업종이면서 ②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③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기준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 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2월 19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20.~12.24.,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26.~12.31.에 진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진로교육 혁신 방안 마련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2024년 11월 20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인공지능(AI) 시대 진로교육 혁신 ~원-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AI기반 잡케어(Jobcare) 서비스로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11월 20일 수요일 12시 삼육대학교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AI 시대의 혁신적인 진로교육방법’을 주제로 제59차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진로교육 교수-학습법과 각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지연 선임연구위원의 ‘AI시대의 혁신적인 진로교육 방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초등·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 교수-학습법 ▲대학교 진로교육 교수-학습법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의 사례 등 4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AI고용서비스팀 조인성 팀장은 ‘성인경력설계를 위한 잡케어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성인 대상 맞춤형 직업 탐색 및 경력개발 지원 서비스인 잡케어(Jobcare) 사례와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박완성 한국진로교육학회장의 사회로 발표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종각 부원장(원장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진로교육 혁신이 필수적”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애 진로·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발전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한국진로교육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진로교육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진로교육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국민의 진로 지원과 경력개발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일경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24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청년 일경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K-디지털 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 결과 101개 기관, 134개 과정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2일(월) 2024년 제3차「청년 일경험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 민간 주도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일경험 참여 기업, 운영기관, 전문가,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국경총) 및 고용부가 모여 발전방향 논의 (공동위원장: 이정환 고용정책실장, 조성봉 SK하이닉스 부사장)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년 일경험사업의 운영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에 대응해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23년 2.6만명→’24년 4.8만명)했으며, 현재 4.6만명(목표대비 97%)이 참여해(사업기간: ‘24.3월~25.2월까지)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청년은 원하는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데 실천같이 배울 수 있었고, 기업은 우수 인재 탐색·확보 측면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직무교육 내실화 등 의견도 함께 제기되어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일경험 희망 직무를 조사한 결과, 경영·사무, 정보기술(IT) 직무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회계 직무는 ‘24년 지원 규모 대비 청년 수요가 높게 나타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 경영·사무(31.4%), IT(15.3%), 광고·마케팅(11.8%), 금융·회계(11.2%), 공공행정(9.2%) 순

공동위원장인 조성봉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올해 사업 목표 달성을 보니 일경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양질의 일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질적 관리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경력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규모를 1만명 확대하고(정부예산안 기준), 우수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24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산업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7개 개발, 105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첨단 기술 발전과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2024년에 신규 개발한 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105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4일(수) 확정·고시*했다.

* (현황) 24개 대분류, 81개 중분류, 273개 소분류, 1,100개 세분류, 13,343개 능력단위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데이터거버넌스’ 등과 미래유망 분야의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봉사관리’ 등 총 7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관계부처*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협회·단체 등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현장성을 높였다.

* 자원봉사관리(행정안전부), 의약품 임상시험(보건복지부), 건설기계성능검사(국토교통부), 정보보호제품시험·평가, SW 공급망 보안, 모빌리티 보안(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산업현장 변화에 발맞추어 ‘보안사고분석대응’, ‘인공지능서비스구현’, ‘스마트설비설계’ 등 기존에 개발한 105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기준으로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산업발전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변화에 발맞춘 국가직무능력표준 신규 개발 및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0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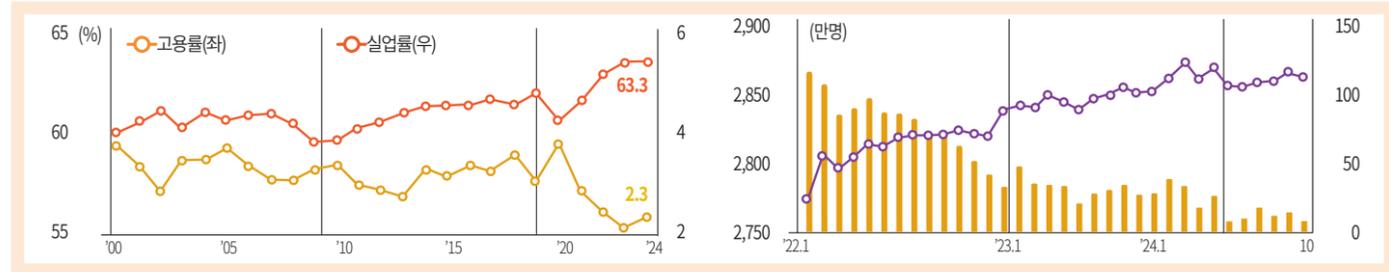


고용노동부, 2024. 11. 13.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024년 10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률(63.3%) · 경제활동참가율(64.7%)은 10월 역대 최고, 실업률(2.3%) 10월 역대 최저 2위, 취업자수 +8.3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63.3%, +0.0%p)·15~64세 고용률(69.8%, +0.1%p) 모두 10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64.7%, +0.0%p) 10월 기준 역대 최고
- 실업률(2.3%)은 상승(+0.2%p)하여 10월 기준 역대 최저 2위
- 취업자수 전년대비 +8.3만명 증가(44개월 연속)

⇒ 15세 이상 고용률 · 실업률(원계열, 매년 10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비)



- (산업별) 서비스업 증가,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감소
- 서비스 45개월 연속 증가 지속(+34.5→+27.8만명)
 - 보건복지업(+9.7만명) · 교육서비스업(+8.4만명)은 돌봄수요 지속 및 늘봄학교 확대(1학기2,963개→2학기6,363개) 영향 등으로 증가폭 확대
 - 전문과학(+7.7만명) · 정보통신(+6.8만명) · 운수창고업(+5.2만명) 증가 지속
 - 개인서비스업(+2.3만명)은 혼인 증가 등으로 웨딩 유관업종 중심 증가
 - 도소매업(△14.8만명)은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 지속
 - 사업시설(△6.2만명)은 건설현장 인력알선업 중심 감소 지속
- 제조 수출 증가 등으로 고용 감소폭 축소(△3.3만명)
- 건설 건설수주 둔화 등 영향으로 고용 감소 지속(△9.3만명)
- 농림 폭염에 따른 작황부진 및 10월 경찰 조사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영향으로 고용 감소폭 확대(△6.7만명)
- (지위·연령) 상용직 56.6%(10월 역대 최고), 30·40대 및 고령층 고용률 상승
- 지위 상용직 증가 지속(+9.1만명)하며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지속(9월+0.5→10월+4.4만명)하며 비임금근로자도 감소폭 축소(9월△1.6→10월△1.3만명)

- 연령 30대·40대·고령층에서 고용률 상승
 - 청년고용률(45.6%, △0.8%p) 하락하였으나, 실업률(5.5%, 0.4%p)은 역대 최저 2위, 20대 후반 고용률(72.2%, △0.5%p)은 역대 2위로 높은 수준
 -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40대도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 50대는 고용률 하락하였으나 역대 2위로 높은 수준, 60세 이상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취업자 증가 · 고용률 상승 지속
- (평가·전망) 고용률·경황률 역대 최고 등 주요 고용지표 양호한 모습을 이어 갔으나, 건설근로자 감소 및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
- 지난해 10월 고용증가세가 확대되었던 기저효과(9월30.9→10월34.6만명)로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대비 축소(9월14.4만명→10월8.3만명)
- 고용이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였던 '22~'23년 대비 고용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가운데, 건설업 · 자영업자 및 청년 등 어려움 지속
- 기저효과('23.10월 34.6→'11월 27.7만명), 실질임금(+전환 등 소비여건* 점차 개선 등 감안시 11~12월은 고용 증가폭 확대 가능성

⇒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 역동성 제고 + 내수보강 노력 강화
 - 공공투자 8조원 보강 및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 연내 마련 등 건설일자리 지원 노력
 - 소상공인 종합대책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지원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추가 지원방안 연내 마련
 - 청년 · 여성 · 중장년 등 맞춤형 경제활동촉진 방안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차) 마련 · 추진
- ※ 범부처 일자리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여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 적극 강구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이달의 키워드(워드클라우드)



HRD동향 12월호 워드클라우드

2024년 HRD동향 12월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 1위 현장
- 2위 맞춤형
- 3위 HRD

'24년 12월호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과 과거 전공불문 현장 맞춤형 인재로 거듭난 사연, 그리고 인공지능(AI)을 통한 진로교육 혁신과 HRD영역내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HRD 생생정보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2023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 정순기, 김영달, 홍현균, 정재현, 박세정, 김새봄, 이해연, 박미화, 박비곤, 김진성, 이선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전통적인 산업 영역내 디지털화 역량 내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
- 챗 GPT 등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오는 폭넓은 기술 변화
- AI 등 디지털 역량을 내재화, 산업 내 역량과 융합하여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 산업 경쟁력 영위의 중요성

☑ 주요목차

- 디지털 전환과 기술 변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현황(사업체조사)
- 자동화에 따른 직업별 일자리 대체 가능성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가능성 분석
- 델파이조사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 일자리 변동 분석



2023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 김수현, 방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 일자리 변동 분석**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미래자동차 생산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
- 스마트 자동차, 커넥티드 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전과 빠르게 진행되는 상용화
- 미래자동차 생산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 자동차 부품 산업 노동시장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 확인 및 문제 파악

☑ 주요목차

-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 및 특성
-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 일자리 변화
-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이 자동차 부품 산업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부품 산업 고용 변동 및 노동이동 양상 분석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2023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 박세정, 전주용, 노대영, 성열용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의 확산 등 한국의 음식점업의 빠른 비대면·디지털화 진행 배경
- 음식점업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전환 사례
- 음식점의 디지털 전환에 초점, 키오스크, 태블릿 주문기, 서빙로봇의 도입과 이로 인한 음식점업 노동시장의 변화

☑ 주요목차

- 푸드테크 관련 산업 현황
- 푸드테크 관련 산업 생태계
- 국내 음식점업 내 디지털전환 기기 도입에 대한 분석
- 국내 음식점업의 노동시장 특성



직장이동(Job-to-Job)과 산업별 일자리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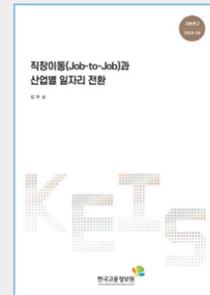
2023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 김두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산업·일자리전환을 위한 재직자 훈련 성과 제고 방안**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직장이동(J2J: Job-to-Job)의 특성과 이들이 노동이동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 수준에서 임금변동성에 미치는 각 요인의 방향성
- 산업연동변화율 기준 정렬, 높은 순위는 임금성과가 좋은 것으로 해석해 이동성 지표를 통한 효율적 이동 여부 평가
- 장기간 숙련도 축적 집단은 직장 이동 시 다른 이동에 비해 높은 성과

☑ 주요목차

- 직장이동(job-to-job)의 식별
- 직장이동(job-to-job)과 노동시장 성과
- 산업간 일자리 전환 조합의 탐색
- 장기근속 은퇴 연령대의 일자리 전환





- 11.7.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사도 교육청 매칭데이
- 11.20~11.21.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 11.25. 사업주자격 정부인증 선포 및 협약식
- 11.27.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 11.27.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 12.3.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 현장 방문
- 12.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
- 12.10.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주요결과 발표



- 11.21.~11.28.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심사
- 12.4.~12.11. '25년도 제1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집체심사
- 11.25.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정부 인증사업 선포식
- 11.25. '24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위촉식 개최
- 11.27.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11.5. 제5회 HRD-DAY
 - 11.5. 직업훈련 신고수법 포럼 및 훈련교사 간담회
 - 11.15.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품질관리 역량강화 사업 컨퍼런스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12.6. 2025년 훈련이수자평가 계획 공고
 - 12.11. 2024년 KDT 컨퍼런스 개최
 - 12.13. 20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훈련과정 반납 및 재선정 계획 공고
 - 12.23. 2024년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심사 결과 발표



- 11.6.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경진대회 본선 개최 및 시상식
- 12.3. 2024년 캡스톤 프로젝트 작품대회
- 12.11. 지역난방안전(주) 업무협약
- 12.31.~'25.1.15. 2025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신입생 정시 원서접수
- 11.1~'25년 2월 대졸자 대상 국비 기술교육 '하이테크과정' 모집
- 계속 직업훈련과정(전문기술과정,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모집



- 11.11~12.8. 잡케어 서비스 오픈 이벤트
- 11.27~12.6. 2024년 하반기 고용24 고객만족도 조사
- 12.11. 생애경력개발정보 웹진 [커리어 Info] 12월호(37호) 발간



- 11.6. 제8차 국가진로교육포럼 「AI시대,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진로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
- 11.20.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따른 2024년 후속지원 정책연구 포럼 및 성과보고회
- 11.20. 2024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보고회
- 11.25. 2024년교육부-사회정책주요학회공동컨퍼런스 「데이터기반사회정책: 연구-정책환류방안모색」
- 11.28. 제8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훈련의 길을 찾다」
- 12.13. 2024년 진로교육 성과공유회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루마, 해남이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해외 취업 이후 현지에서 정착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Q.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입니다. 이제 현지에서 정착하고 싶은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A. 해외 취업 이후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에 주목하세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란?

해외 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주요 내용

지원 인원: 3,900명

지원 금액: 1인당 총 500만 원, 차수별 분할 지급

구분	지원 시기	지원 금액
1차	취업 후 1개월	250만 원
2차	취업 후 6개월	100만 원
3차	취업 후 12개월	150만 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취업 인정 기준

지원 대상	취업 인정 기준
· 만 34세 이하(88.11 이후 출생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취업비자 획득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재산 소득 8분위 이하	· 연봉 1,700만 원 이상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 등록 (지원가능)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 1년 이상
	· 단순 노무 직종 제외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회원가입 기준 회원 가능
2. 취업 성공 취업 인정 기준 부합
3.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기간 1개월 후
4. 2차 지원금 신청 취업 기간 6개월 후
5. 3차 지원금 신청 취업 기간 12개월 후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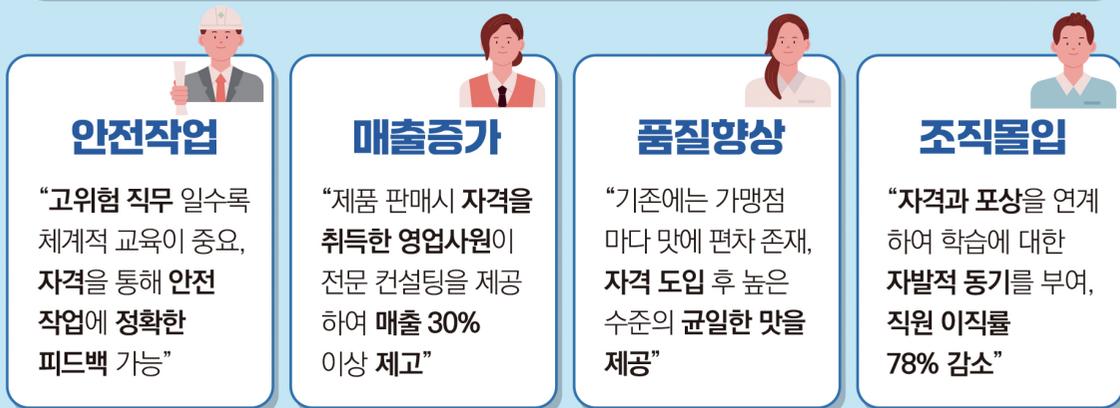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https://www.worldjob.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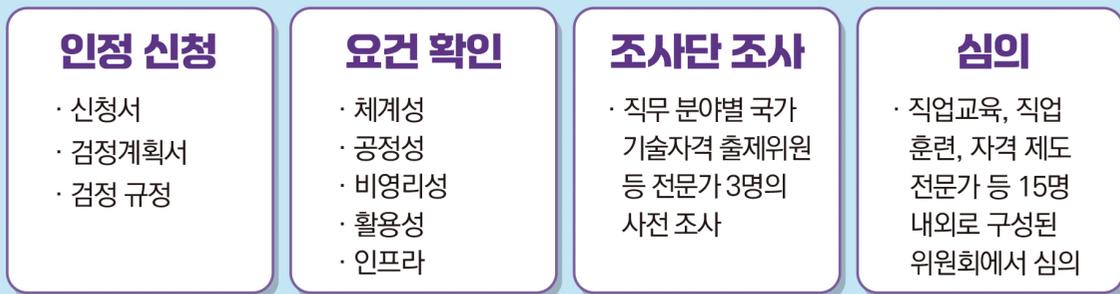


내 일에 딱 맞는 기업 자격, 함께 키워 가겠습니다.

사업주자격



심사



인정

